



사회적 The Social Dialogue 대화 Brief

2025년 - 4호 | 통권 71호 |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 개최

- 노사정, 사회적 대화 정상화 계기 마련을 위해 한자리 모여 -



▲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왼쪽 다섯 번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 여섯 번째), 손경식 경총 회장(왼쪽 일곱 번째), 김문수 고용부 장관(왼쪽 여덟 번째)과 참석자들이 3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3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경사노위는 작년 한해 동안 계속고용 및 일·생활 균형 등 주요 노동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왔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시연구회를 제외한 모든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었다. 이에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하자는 뜻을 같이하고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했다.



▲ 권기섭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첫 번째 세션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 박윤수 숙명여대 교수, 오삼일 한국은행 팀장, 전병유 한신대 교수, 권오성 연세대 교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대독 개회사를 통해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탄핵재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까지 고조되어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향후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는 정부 개입을 지양하고 노사중심성의 원칙을 확립하는 등 노사정 상호신뢰가 빠르게 복원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디지털화에 따른 급격한 산업구조와 근로환경 등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며,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불합리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고령자 인력활용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양극화와 산업전환의 충격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장년은 원하는 만큼 일하기 어려우며, 기업은 경쟁력 약화를 넘어 생존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때마다 모두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해 왔던 저력을 바탕으로 노사는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정부는 노동시장의 창의적 해



▲ 발제하는 성재민(왼쪽) 노동연구원 부원장과 박철성 한양대 교수.

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우리는 AI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도전에 더해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의 경쟁력이 국가 안보 및 협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더 늦기 전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노동 규범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위원회가 최근 고용·노동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복합위기 시대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제와 경사노위 역할’ 조사를 소개하고,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 방안, 원·하청 및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등을 우선순위 논의과제로 뽑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토론회가 소통과 타협의 시작을 알리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와 노동시장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사회적 대화의 역할과 미래 비전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



▲ 두 번째 세션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장, 정문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에는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복합위기 대응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노사정 뿐만 아니라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열려 전환기 사회적 대화의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저성장, 인구감소, 기후 위기, 산업전환 등 복합위기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생산성 개선, 근로시간 제도 개혁,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방향 등 노동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철성 한양대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해

법'을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을 분석하고, 임금정보 공개 및 근로자대표제 운영 개선을 통한 격차 완화, 근로자 상향 이동 촉진을 위한 유연안정성 확대 등을 제안했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전환기 사회적 대화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노사정 신뢰와 정치적 리더십 회복 필요성을 제안했다. 노사정 외에도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환기 사회적 대화를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SIC**

담당 전문위원실 송해순 전문위원

권기섭 위원장 주한 스웨덴 대사 접견

- 권기섭 위원장 “살트셰바덴 협약처럼 결국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3월 13일 주한 스웨덴대사관에 방문해 칼-올로프 안데르손 주한 스웨덴 대사와 기념촬영을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3월 13일 주한스웨덴대사관에서 칼-올로프 안데르손 주한 스웨덴 대사를 만나 양국의 사회적 대타협 경험과 고령자 계속고용 사례 등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면담에서 “한국은 복합전환 시대의 극복과 국가 재도약을 위해 노동시장 등 각 분야별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저성장이 고착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큼 중

요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최근 정치적 변수로 인해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지만, 선진화된 민주국가에서는 스웨덴의 살트셰바덴 협약의 경험처럼 결국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특히 경사노위는 최근 기록적인 저출생·고령화를 맞아 한국 실정에 맞는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시대적 상황이 다르고, 국가적 특수성이 존재하지만, 오늘 만남을 통해 양국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양국의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칼-올로프 안데르손 주한 스웨덴 대사는 “스웨덴에서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 개시 연령과 정년이 함께 연장되고 있다”며 “모든 개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대화와 심도 있는 공론화 과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데르손 대사는 “한국과 스웨덴은 인구 고령화를 함께 겪고 있는 기술 선진국으로 앞으로 많은 도전과 협력의 기회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 기관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양국이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사례를 교환하고 앞으로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SIC**

담당 대외협력실 손옥이 전문위원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 ‘출입기자단 오픈 데이’ 개최

- AI 제조업 혁신 및 일자리 변화 집중 조명 -



▲ 경사노위가 3월 28일 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 6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월 8일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하였다.

그간 연구회는 노·사·정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총 5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사회적 영향, 산업별 도입 실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3월 28일 6차 회의에서는 'AI 기반 제조업 혁신과 일자리 변화'를 주제로, 제조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의 방식과 노동시장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영재 KAIST 교수는 「제조AI와 경제·사회·노동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장 교수는 AI와 디지털트윈 기반의 원격·무인 공장 체계를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공장의 기능을 유연하게 변경 및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 고용의 구조와 국가 제조 기반의 재편이라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진단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정윤 인터엑스 대표는 「제조AI활용 사례 및 현황」 발표를 통해, 자율공장 구축이 생산성·품질·비용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자율 제조 AI 및 제조특화 생성형AI를 활용한 제조혁신 사례를 통해 AI 솔루션 도입 후 실질적인 기업 생산능력 향상 등의 성과를 설명하며, AI 기술이 고용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기업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작업자 간 품질 관리의 불균일성 해소 및 관리 수준의 전반적 향상, 불량 발생 시 숙련 및 비숙련 인력의 신속한 대응과 양품 생산 가능, 고효율 업무로의 인력 재배치 등

세 번째 발제자인 조정철 LS ELECTRIC 부장은 「AI와 일자리 변화에 대하여: 사례중심으로」를 주제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DX)과 AI 도입이 '일의 본질'과 노동의 방식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발표하였다. 조 부장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사례를 소개하고, AI는 단순한 자동화 수단을 넘어, 업무의 질을 높이고 실무자의 판단을 보조하는 '디지털 비서'로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AI를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닌 '인류를 보강하는 기술'로 이해하고, 사람과 AI의 협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사·정 위원과 전문가 위원들이 제조업 디지털 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AI 도입에 따른 직무 재설계 및 교육훈련의 필요성, 노동시장 법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장지연 공동좌장은 “지금까지 현장의 기술 변화에 주목해 왔으며, 앞으로는 노동시장 및 고용변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교육 및 훈련 등 인재양성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호 공동좌장은 “향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7월경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 우리 사회의 고민과 질문을 담은 '녹서(綠書)'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SC**

담당 전문위원실 김지수 전문위원